

일본 도심 공공도서관의 가족이용자의 체재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dential Behavior of Family at the City Center Public Library in Japan

박 인 규(In-Kyoo Park)*

< 목 차 >

- | | |
|-----------------------|----------------------|
| I. 서 론 | 2. 가족이용자의 이용유형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가족이용자의 독서시간 |
| 2. 공공도서관 독서공간구성의 변화 | 4. 비독서행위 |
| 3. 조사개요 및 방법 | Ⅲ.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별 이용행태 |
| Ⅱ. 공공도서관 가족이용자의 이용유형과 | 분석 |
| 행위의 특징 | Ⅳ. 결 론 |
| 1. 가족이용자의 가족구성 | |

초 록

최근의 도서관 변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먼저 이용자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 평일의 학생이용중심에서 주부, 무직자, 고령자 이용과 휴일에는 가족동반이용 등으로 이용자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체재형도서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 출현하여 이용자의 속성에 대응하는 형태로 독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체재형도서관으로의 이행시기에 있는 도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내에서의 가족의 이용행동 조사하여 가족이용유형의 구성특징 및 공간구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비독서행위에 대하여 고찰을 행하였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체재형도서관, 가족이용, 비독서행위

ABSTRACT

Library change of recent times first change of the user there is a wild possibility with most big feature. The user the housewife and unemployment sleeps from the student use center of weekday, with very old man use and to holiday the attribute of the user is changing with family accompaniment use. As the residential type library does recently and the library of new concept appears and it provides a reading service with the form which confront in attribute of the user who is various. This study which it sees the public library of the city center where there is to an execution time at the residential type library the family from inside the library tracking investigated use conduct in the object. This research analyzed the interrelation of composition feature of the type of family use and the un-reading behavior.

Key Words: Public Library, Residential Library, Family Use, Un-reading Behavior

*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archpark@pcu.ac.kr)

• 접수일: 2007년 8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7년 8월 3일 • 최종심사일: 2007년 9월 21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평생학습시대의 도래와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주말2일제의 정착 등에 의한 여가생활의 풍부함과 함께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매체의 발달은 공공도서관으로 하여금 시민의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며 지적호기심과 알권리를 만족시키는 종합적인 지적, 문화적 공동체로서의 “평생 학습의 장”으로서 그 위상변화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상황의 변화에 발맞추어 공공도서관도 최근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전의 도서관은 대출서비스를 주요 목적으로 알기 쉬운 서가배치와 장서수용의 효율화 및 합리화에 근거한 하드적인 측면과 대출서비스를 중시한 운영형태의 소프트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소위 “대출형도서관”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도서관체재이용에 목적을 둔 “체재형도서관”¹⁾으로의 이행이 적극적으로 표방되고 있다.²⁾

북유럽을 중심으로 생겨난 체재형도서관의 개념은 지역민들의 새로운 커뮤니티시설로 지역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며 단순히 도서관을 “책을 빌려보는 장소”로만 국한된 것이 아닌 지역의 살롱으로서 커뮤니티기능의 확대와 함께 전시회장으로 토론의 장소로 문화공간으로의 기능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더욱이 도서관과 같은 공공문화시설은 사회상황의 변화에 민감해야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주체의 변화와 함께 행동양식의 변화 등을 고려한 도서관의 계획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상황 가운데 이웃 일본에서는 사회교육시설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변화를 도모하여 체재형도서관의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재형도서관은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다르게 이용자 및 이용형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 먼저 이용자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 평일의 학생이용중심에서 주부, 무직자, 고령자 이용과 휴일에는 가족동반이용³⁾ 등으로 이용자의 속성이 변화하고 있다(그림 1 참조).⁴⁾

1) SD別册31号, “本と人のための空間”, 鹿島出版會, 1998,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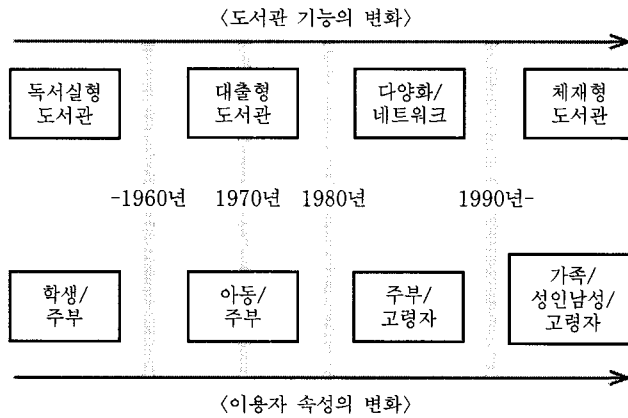
2) 체재형도서관은 책을 보거나 정보를 입수하는 본래의 도서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공간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어 장시간 도서관내에 거하면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를 충분히 음미하며 도서를 통한 지역민, 가족 등의 커뮤니티확대를 목적으로 생겨난 도서관으로 지역 커뮤니티시설의 중심지점의 역할을 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일본도 1990년대부터 체재형도서관이 도입되고 있다.

朴仁圭, “公共図書館における利用と滞在行動に関する研究”,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01. pp.1-17.

3) 朴仁圭, 長澤 泰, “時間的變化から見た図書館の滞在行動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1999年度大會學術講演梗概集, 1999.

4) SD別册31号, “本と人のための空間”, 鹿島出版會, 1998, pp.4-11.

朴仁圭, “公共図書館における利用と滞在行動に関する研究”,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01. pp.1-14.



〈그림 1〉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이용자속성의 변화

이용내용에 있어서는 단지 목적으로 하는 책을 빌려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장시간 도서관 내에 거하면서 도서관측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⁵⁾를 누리는 체재형 이용이 늘어나면서 책뿐만 아니라 신문·잡지, AV자료, 간이카페, 전시 및 옥외정원공간의 이용 및 대화, 놀이 등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종래의 도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열람, 대출이라고 하는 일련의 기본적인 기능에 문화 및 정보 관련의 전반적인 자료의 수집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 및 사회교육활동, 개인의 여가시간의 활용의 장으로써의 기능이 추가되어져 지역 및 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들이 도입되고 있다(그림 2 참조).⁶⁾

체재형도서관은 도서이용형태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기존의 도서관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시설로서 그 위상이 부여됨과 동시에 독서공간구성의 설정방향에 중요한 과제를 부여하고 되며 지금까지의 시설이미지를 탈피한 이용자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다채로운 독서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는 계획이념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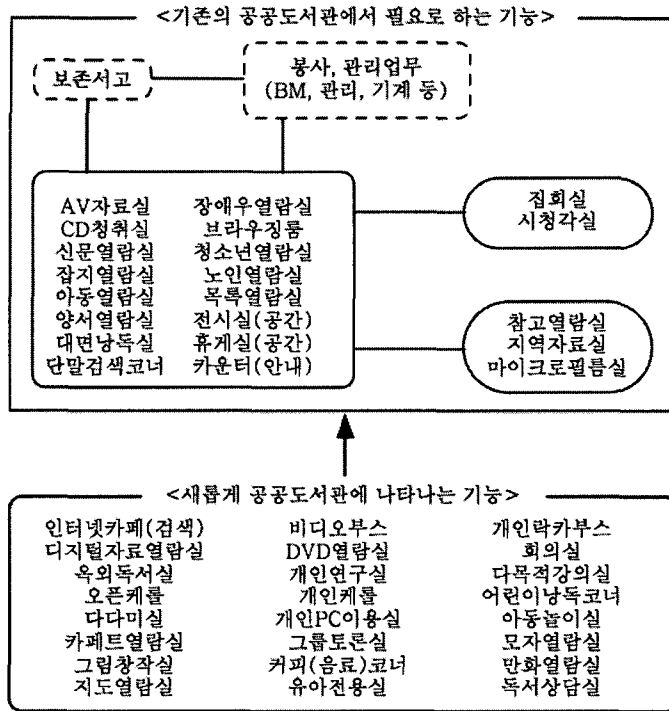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일본의 도심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체재형도서관으로의 이행시기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독서를 통한 가족이용자의 도서관이용에 주목하여 가족동반이용에 있어서 가족이용자의 이용유형을 정의하고 가족이용유형의 특징 및 독서행동과 공간과의 관련성을 명백히 하여 공공도서관에 있어서 독서공간의 설정방향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도서관의 서비스라 함은 정보검색 및 도서선택유도 및 안내뿐만 아니라 독서공간이 제공하는 공간의 심리적 서비스도 포함한다.

朴仁圭, “公共図書館における利用と滞在行動に関する研究”, 東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01.

6) 大旗健ほか, “地域施設における読書室の使われ方”, 日本建築學會昭和43年度大會學術講演梗概集, 〈計畫系〉, 1968, pp.413-414. ; 大西敏之ほか, “公共図書館の内部變化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昭和44年度大會學術講演梗概集, 〈計畫系〉, 1969, pp.495-496. ; 建築設計資料, “43 図書館2”, 建築資料研究社, 2000. ; 日本図書館學會研究委員會編, “メディアの多様化と図書館”, 論集・図書館學研究の歩み, 第4集, 日外アソシエーツ, 1984.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3호)



<그림 2> 공공도서관 기능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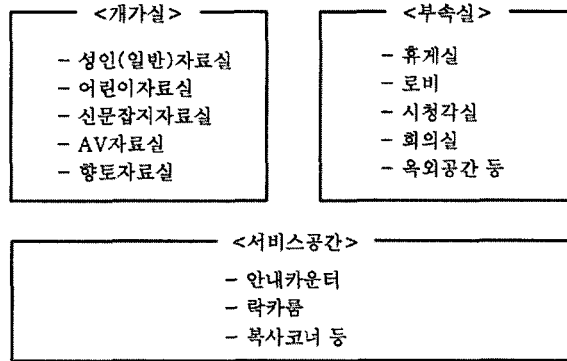
2. 공공도서관 독서공간구성의 변화

독서공간의 개방화는 많은 종류의 자료이용에는 적합하지만 특히 가족과 같은 집단이용에 있어서는 각 독서공간의 배치구성이 이용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관내 체재시간이 장기화됨에 따르는 관내 독서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독서공간의 설정 또한 중요하게 된다.

현재의 도서관에 있어서 자료실⁷⁾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개가실, 부속실, 서비스공간의 크게 3가지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이 주어지는 것은 개가실로 성인자료실⁸⁾과 어린이자료실, 신문·잡지자료실, AV자료실 등이 중요한 공간구성요소로 되고 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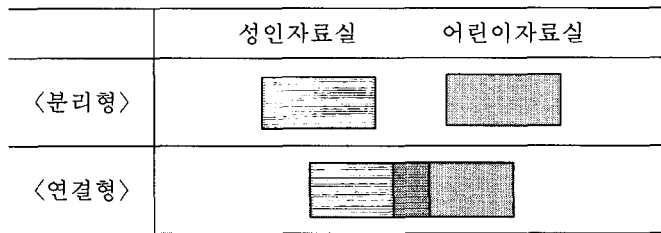
7)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에게 개방되고 있는 공간만을 취급하고 보존서고, 폐가서고, BM서고 및 사무공간 등의 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8) 성인의 책이 열람되는 공간으로 성인코너, 성인개가실, 일반서열람실 등 도서관에 따라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괄하여 성인자료실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실에 관해서도 아동열람실, 아동개가실, 어린이코너 등으로 불리는데 일괄하여 어린이자료실로 부르기로 한다.



〈그림 3〉 도서관의 공간구성 요소

성인 및 어린이자료실은 서가의 분류로부터 각각의 실이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공간구성 형식으로는 어린이의 주체적 이용장소인 어린이자료실과 AV자료실, 그리고 성인의 주체적 장소인 성인자료실은 신문·잡지자료실의 배치관계에 의해 〈그림 4〉와 같이 「분리」형과 「인접」형의 2가지로 나뉜다.



〈그림 4〉 자료실구성의 형태

「분리」형은 어린이이용과 성인이용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양쪽의 자료실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구성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양쪽실들 사이에 별도의 코너나 완충공간, 홀 등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하여 「인접」형은 양쪽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양쪽실들 사이를 직접 왕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둘의 공간구성의 형식은 전혀 틀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폐가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시기에는 성인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로서 각각 독립하여 있었으나 폐가식에서 개가식으로 운영방침이 바뀐 후 관외대출이용에 대응한 자료실의 개방화에 따라 어린이자료실의 배치문제로 인해 종래와 같이 어린이자료실로서 성인자료실로부터 분리시키는 방향과 성인자료실 가운데 어린이자료실을 배치시키는 방향이 있었다.⁹⁾

9) 西川 馨, “公共図書館の利用形態調査(公共図書館の地或計畫のために)”, 現代の図書館, Vol. 23, No.3, 1985.
 栗原嘉一郎, “讀書施設の狀況と住民の讀書形態(公共図書館の設置計畫に關する研究2)”, 日本建築學會論文報告集.

전자의 이유는 성인이용과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이고 후자는 어린이와 주부의 동반이용 및 중학생으로의 이행시기인 어린이에게 있어서 어린이자료와 일반자료의 상호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제의 도서관 배치구성을 보면 개가실의 일부로서 어린이자료실을 형성하긴 하지만 상기의 이유로부터 성인자료실과는 독립된 형태가 많아 분리구성의 원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입학 전 어린이의 이용률이 평일보다 휴일에 많아지고 그에 따른 가족 등의 집단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의 배치관련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종래의 분류구성과는 다른 차원의 계획지침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가족이용자에게 있어서는 어린이와 부모의 이용목적의 유무와 상호의 관계에 있어서 이용 및 체재형태는 틀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서관의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들이 이용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조사개요 및 방법

조사대상도서관(이하, 조사관)은 일본 동경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공공도서관으로 공원 내에 위치하여 공원과 연계된 옥외테라스 및 야외독서코너를 가지고 있어 산책 중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光が丘(히카리가오카)도서관과 도서관내부에 커피숍 및 식당을 두어 식음료를 마시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洗足池(센조쿠이계)도서관, 그리고 도심주거지내에 위치한 콤팩트한 도서관으로 가족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羽田(하네다)도서관의 3관으로 <분리형>과 <인접형>으로 자료실의 공간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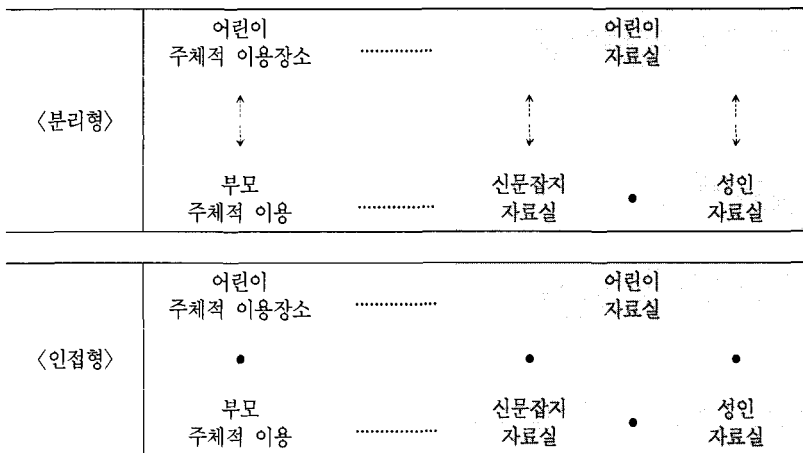
자료실의 공간구성은 성인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의 배치형태에 따라 <그림 6>에 개념도와 같이 <분리형>과 <인접형>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분리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성인과 어린이의 이용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각각의 이용목적을 만족시켜주는 방향으로 계획된 도서관으로 한 층에 평면적으로 분리시키는 것과 光が丘(히카리가오카)도서관처럼 층으로 분리시키는 타입이 있다. 洗足池(센조쿠이계)도서관과 羽田(하네다)도서관은 <인접형>이나 洗足池(센조쿠이계)도서관은 성인자료실이 어린이자료실과 연결되어 있고 羽田(하네다)도서관은 신문·잡지자료실이 어린이 자료실에 인접하여 있는 형태이다.

〈표 1〉 조사대상도서관의 개요

도서관명	光が丘(히카리가오카)	洗足池(센조쿠이케)	羽田(하네다)	
연면적(㎡)	3576.4	1253.6	1299.8	
층 수	지상2층	지상2층	지상3층	
서가면적(㎡)	1,574	463.9	393	
자료 수	일반서(권)	81,000	66,231	52,527
	이동서(권)	31,000	14,915	17,186
	신문·잡지(종)	450	123	154
	AV자료(점)	11,050	3,948	6,754
개관년도	98년5월(신축)	96년7월(개축)	94년9월(신축)	
성인/어린이자료실의 관계	분리형	인접형	인접형	
독서석(자료열람)과 서가공간과의 관계	(알코브*/일체)혼합형	일체형	일체형	
신문잡지자료실	알코브형	일체형	알코브형	
AV자료실	일체형	일체형	알코브형	
기타 공간	어린이용 옥외 테라스, 컴퓨터 코너, 야외독서코너 등	식당, 옥외 테라스, 카페트코너 등	카페트코너, 이야기코너, 휴게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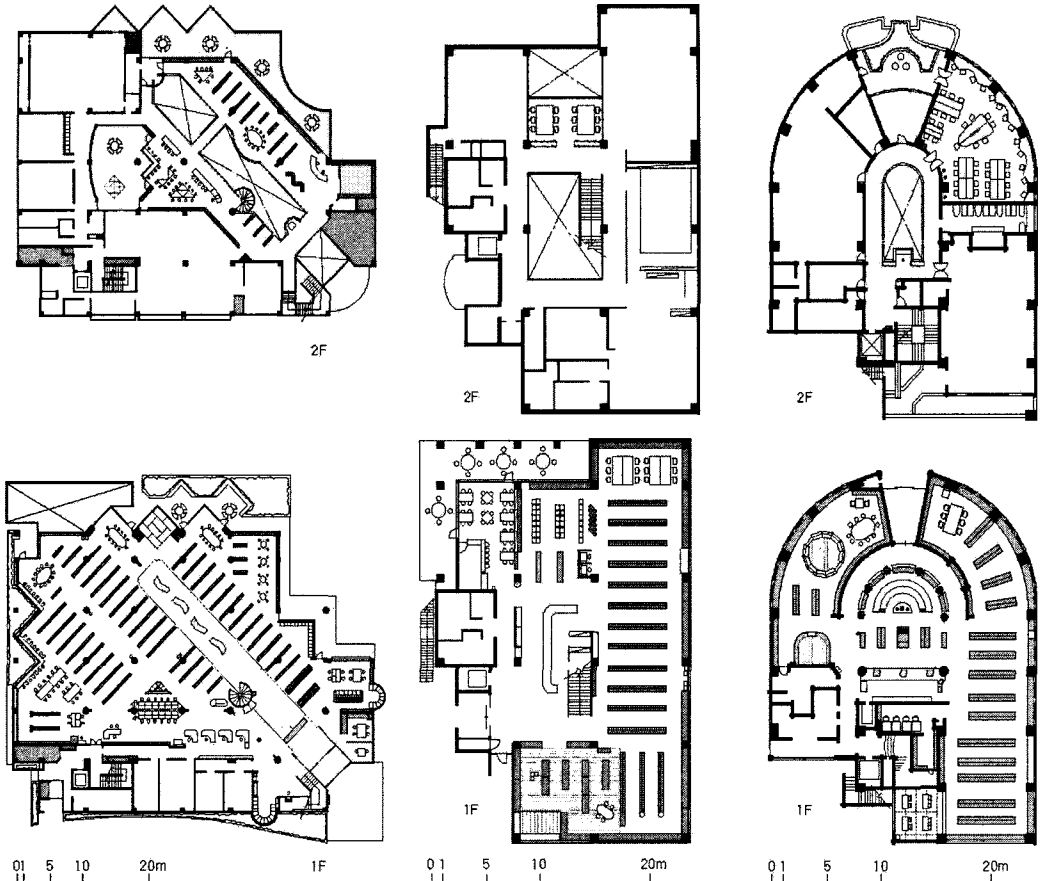
〈표 2〉 조사개요

도서관명	光が丘(히카리가오카)	洗足池(센조쿠이케)	羽田(하네다)	합 계
조사대상가족수(가족)	22	24	20	66
조사대상인원(명)	52	62	43	157
조사대상어린이(명)	27	29	22	78
조사대상동반성인(명)	25	33	21	79



(• 연결) (↔ 분리)

〈그림 5〉 조사관의 공간구성의 형



〈그림 7〉 조사관의 평면도

조사는 어린이 및 유아가 성인과 같이 입관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도서관에 대하여 평일과 휴일의 성격을 갖고 있는 토요일을 조사대상일로 정해 개관시간부터 폐관시간까지의 추적 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입관한 한 가족을 대상으로 입관부터 퇴관까지의 가족이용자 개개인이 이용한 공간, 시간, 행위내용을 평면도에 기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추출에 있어서 의도적인 대상자선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 가족의 조사가 끝나면 퇴관시에 가족구성에 대해 질의를 한 후 출입구에 대기하여 다음에 입관하는 가족을 추적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조사대상 가족은 光が丘(히카리가오까) 22, 洗足池(센조쿠이끼) 24, 羽田(하네다)도서관의 20 가족의 총 66가족이며 총 대상인원은 157명으로 이 중 어린이가 78명, 동반한 성인이 79명이다.

II. 공공도서관 가족이용자의 이용유형과 행위의 특징

1. 가족이용자의 가족구성

가족이용에 있어서 어린이와 부모의 인원구성을 <표 3>에서 보면 어린이 1명과 부모 1명의 구성이 약 7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어린이 2인 이상과 부모 1인 그리고 부모가 2인인 구성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족의 인원구성

단위: (구성수/%)

이용자 가족구성	어린이1+부모1	어린이1+부모2	어린이2이상+부모1	어린이2이상+부모2	합 계
光が丘 (히카리가오까)	16 72.1	1 4.5	3 13.7	2 9.5	22 100.0
洗足池 (센조쿠이께)	13 54.2	6 25.0	4 16.6	1 4.2	24 100.0
羽田 (하네다)	18 90.0	0 0.0	1 5.0	1 5.0	20 100.0
계	47 71.2	7 10.6	8 12.1	4 6.1	66 100.0

도서관별로 보면 光が丘(히카리가오까) 도서관은 어린이 1명과 부모 1명의 구성이 72.1%로 가장 많았고, 洗足池(센조쿠이께)도서관은 어린이 1명과 부모 1명의 구성이 과반수인 54.2%이고 어린이 1명과 부모 2명의 구성이 다음으로 많은 2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羽田(하네다)도서관은 주거지내에 있는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하듯 어린이1명과 부모1명의 구성이 90%로 가족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를 <표 4>와 같이 유아, 아동의 학년계층으로 나눠보면 유아가 과반수를 넘는 59%로 나타났다. 부모는 대부분이 모친(68.4%)으로 나타났는데 즉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친과 유아의 2인 구성이 가족이용자의 주된 이용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4〉 가족의 속성

단위: (인원수/%)

	어린이속성		합계	동반성인속성		합계
	유아*	아동**		모친	부친	
光が丘 (히카리가오카)	19 70.4	8 29.6	27 100.0	15 60.0	10 40.0	25 100.0
洗足池 (센조쿠이케)	12 41.4	17 58.6	29 100.0	21 63.6	12 36.4	33 100.0
羽田 (하네다)	15 68.2	7 31.8	22 100.0	18 85.7	3 14.3	21 100.0
계	46 59.0	32 41.0	78 100.0	54 68.4	25 31.6	79 100.0

* 유아 : 생후 1세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아이

** 아동 : 교육법에서는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력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가족이용자의 이용유형

도서관에 있어서 공간구성 배치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에는 입관에서부터 퇴관까지의 개인의 이용행동에 관한 조사와 더불어 가족이용에 있어서는 개인에 덧붙여서 집단¹⁰⁾으로서의 행동양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책의 선택과 독서에 있어서 어린이는 동반한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령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부모가 상호관계속속에서 이용되는 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가족이용에 있어서는 어린이와 부모의 이용목적¹¹⁾의 유무 및 상호관계성에 따라 이용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 가운데 이용목적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가족이용의 경우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뚜렷한 이용목적¹²⁾을 가지고 내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입관 후에 상황에 맞추어서 이용목적이 명확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것에 덧붙여 최근의 도서관에 있어서 이용목적은 더욱 다양해지기 때문에 단지 독서행위만을 위한 입관뿐만이 아니라 휴식, 놀이 등이 주목적으로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쉽다.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입관부터 퇴관까지 독서와는 상관없는 놀이행위와 도서관내의 산책 등 비독서행위¹²⁾를 행하는 예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체재형도서관에서는 이용목적보다는 이용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가

10) 통상 사용되는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집단은 인간이나 동물의 단순한 모임이나 무리를 나타낼 때 쓰이지만 사회적 개념의 집단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구성원 사이에 상호작용과 커뮤니티가 행해지고 사회적 규범이 공유되며 지위와 역할의 관계가 성립하여 다른 구성원과의 경계를 설정하여 일체성을 유지하는 조직을 말한다.(心理學事典, 平凡社, p.361)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애정의 교환, 도움과 의존, 지배와 복종 등 상호교섭의 관계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집단으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1) 이용목적은 도서관에서의 주된 이용인 도서류의 이용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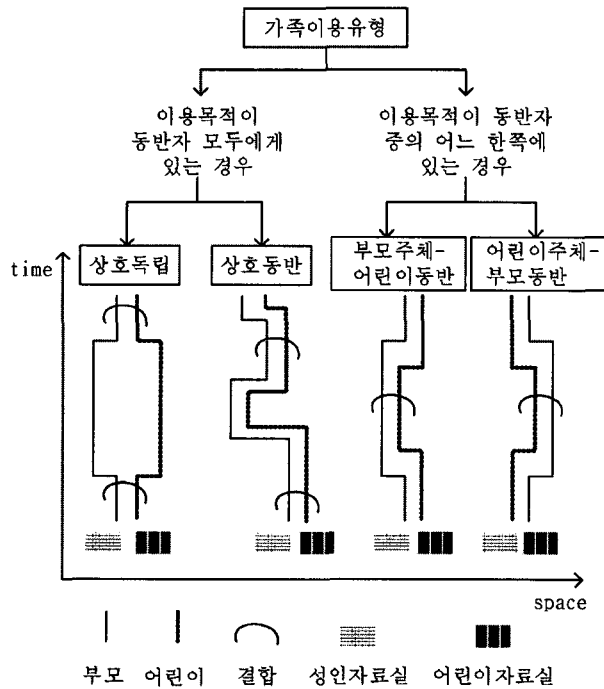
12) 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독서행위(도서자료를 찾거나 열람하는 행위)이외의 행위를 말하며 예를 들어 음식을 먹거나 대화, 낮잠, 휴식, 놀이, 산책 등의 행위를 말한다.

족이용유형이 정의될 수 가 있다.

즉 가족이용자와 같은 집단이용자의 유형은 이용행위와 장소와의 상관관계를 포함한 공간과 시간과의 배열 가운데 이용주체에 따라 변하는 이용자의 이용패스형태¹³⁾에 주목한 결과로서 파악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이용유형은 가족전체가 아니라 개인별로 고려하는데 이것은 어린이와 부모의 구성이 다양하고 각각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의 이용형태는 이용목적과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다르다. 우선 어린이 1인과 부모 1인의 구성에서 생각해본다면 이용목적이 어린이나 부모 중의 한쪽에 있는 경우와 양쪽에 다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린이에게 이용목적이 있는 경우를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형으로 부모에게 있는 경우를 <부모주체-어린이동반>이용형으로 한다. 양쪽에 이용목적이 있는 경우는 상호간에 같이 동반하는 경우와 각자 떨어져서 행동하는 경우의 2가지가 있어 <상호동반>이용과 <상



<그림 7> 가족이용자의 이용유형

13) 시간지리학의 패스개념에 의하면 개인의 존재를 나타내는 각각의 행위와 그 결과는 시간적속성과 공간적속성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은 관찰스케일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약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시간공간을 통과하는 연속적인 패스로서 그릴수가 있다.

荒井良雄, 川口太郎, 岡本耕平, 神谷浩夫 編集 “生活の空間. 都市の時間”, 古今書院, 1989.

호독립)이용이 있다. 형제나 부부가 포함되는 구성에서는 이용목적만으로는 유형화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이용목적과 함께 어린이와 부모의 이용에 있어서 상호의 관계로부터 판단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1인과 부부의 이용구성에서 어린이와 부친에게는 이용목적이 있고 모친에게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모친은 어린이에게 붙어 다니는 것으로 되어 어린이와 모친은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이 되고 부친은 <독립>이용으로 된다.

가족이용자에게 있어서 동반하는 성인의 대부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이하 대상으로 하는 유아나 아동은 <어린이>로 하고 동반성인은 <부모>로 한다.

분석은 먼저 이용자 조사데이터에 의한 속성으로부터 가족이용구성의 특징을 파악하고 어린이와 부모의 이용목적으로부터 이용유형을 설정한 후 공간구성별에 따른 가족이용의 체제시간 및 공간, 행위내용을 분석한다.

<표 5>는 이용주체별로 본 가족이용자의 이용유형이다.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이 가장 많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용유형들에 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양 쪽에 모두 목적이 있는 <상호동반>이용과 <상호독립>이용을 합치면 31.2%로 전체적인 가족의 이용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이용유형과 어린이의 이용유형을 보면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이 가장 많았고 나머지 이용유형들에 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 이는 어린이가 주체적이용을 하며 부모는 어린이의 보호차원 및 자녀의 독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동반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의 이용을 연령별로 보면 유아는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의 비율이 57.4%로 가장 많이 나타나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에서 어린이는 유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가족의 이용유형

단위(인원수: %)

		이용유형				합 계	
		어린이주체 + 부모동반	부모주체 + 어린이동반	상호동반	상호독립		
이용주체	부모	41 51.9	14 17.7	14 17.7	10 12.6	79 100.0	
	어린이	37 47.4	16 20.5	13 16.7	12 15.4	78 100.0	
	연령별	유아	31 57.4	14 26.0	7 12.9	2 3.7	54 100.0
		아동	6 25.0	2 8.3	6 25.0	10 41.7	24 100.0
	계	78 49.7	30 19.1	27 17.2	22 14.0	1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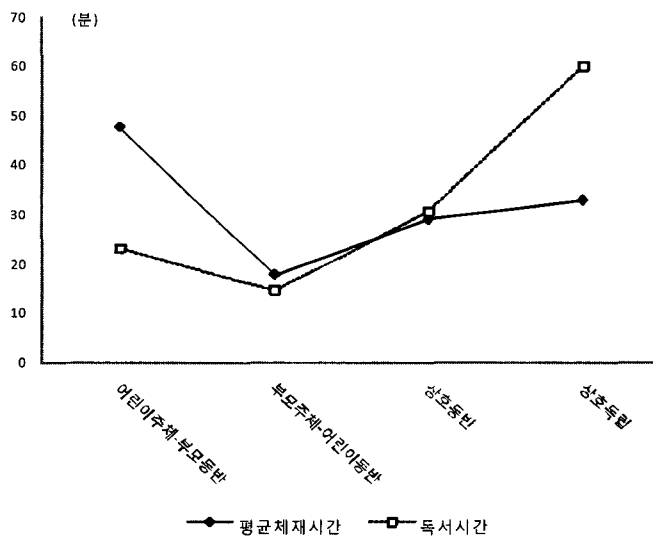
한편 아동의 이용유형을 보면 <상호독립>이용이 이용자의 약 42%로이고 여기에 <상호동반>이용까지를 합치면 66.7%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공부를 배우는 연령단계에 있는 어린이는 비교적 자립적인 독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편, 부모도 <상호동반>과 <상호독립>이용을 합치면 30.3%로 그만큼 이용목적은 가지고 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가족이용자의 독서시간

체재형도서관의 특징의 한가지로 도서관내에서 장시간 지내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 도서관내에서 지내는 형태는 도서관의 본래의 목적인 독서행위¹⁴⁾ 이외에도 비독서행위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전술한 바가 있다.

도서관에서의 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8>과 같이 가족이용자의 이용유형별 체재시간 및 독서시간을 기록하여 분석을 하였다. 도서관내의 평균체재시간을 보면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이 약 48분, <부모주체-어린이동반>이용은 약 18분으로 짧다. <상호동반>이용 및 <상호독립>이용은 어린이와 부모가 상호간에 이용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약 30분으로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에 비해 짧게 나타났다.

한편 독서시간¹⁵⁾을 조사하여 관내 체재시간 가운데 어느 정도로 독서행위가 일어났는가를 조사



<그림 8> 평균체재시간과 독서시간과의 관계

14) 행위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분 이상 지속된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용공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15) 독서시간은 좌석독서, 입식독서, 조사, 책 읽어주기, 어린이의 AV자료 관람 등의 일반적인 독서행위로서, 독서행위시간을 체재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한 결과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이 관내 체재시간에 비해 독서시간(23.2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호독립>이용은 가장 많은 60.2분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관내 평균체재시간과 독서시간과의 상관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은 도서관내 평균체재시간이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독서시간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비독서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이용형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주체-어린이동반>이용은 체재시간 및 독서시간 모두가 짧게 나타나 도서관내에서의 독서보다는 관외로의 대출행위가 많다는 것과 <상호독립>이용은 평균체재시간보다 독서시간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다른 이용 유형에 비해 충실히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장시간 도서관내에서 지내는 가족이용자의 대부분에게서 비독서행위가 많이 발생하지만 짧은 시간의 가족이용자는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비독서행위

장시간 도서관내에서 지내는 가족이용자의 비독서행위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가를 관찰한 결과로 공간과 비독서행위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비독서행위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 읽어주기, 대화, 음식·휴연, 놀이, 낮잠, 기타¹⁶⁾로 구분하여 관찰을 행하였다. 독서행위는 독서, 신문·잡지 등의 경독서, 입식독서, 시험독서¹⁷⁾이고 도서의 선택행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6>은 공간구성별 행위시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분리형>의 비독서행위의 평균시간은 23.0분(대 평균체재시간비: 66.9%)으로 <인접형>의 20.2분(대 평균체재시간비: 58.2%)에 비해 차이가 나고 있고 독서행위시간은 <분리형>에서 11.4분(대 평균체재시간비: 33.1%), <인접형>에서 14.5분(대 평균체재시간비: 41.8%)로 <인접형>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공간구성별 행위시간의 비율

(평균시간: 대 평균체재시간의 비율)

	독서행위	비독서행위	평균체재시간(분)
분리형	11.4	23.0	34.4
	33.1	66.9	100.0
인접형	14.5	20.2	34.7
	41.8	5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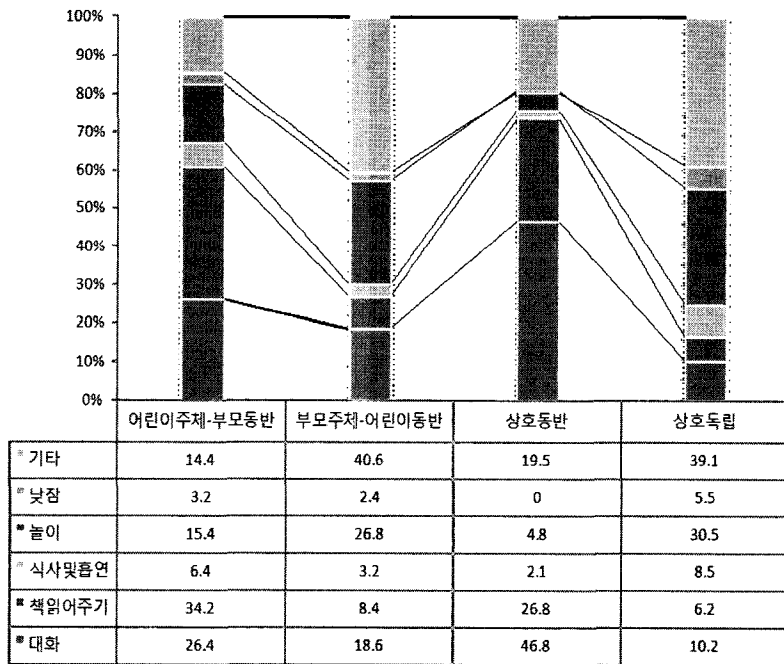
16) 동반자녀의 감시, 동반 부모에게 조르기 등의 떼쓰는 행위, 외부조망이나 산책, 타인의 행위를 바라보는 행위.

17) 대출이나 독서의 목적으로 시험 삼아 책을 훑어보는 행위.

〈분리형〉에서는 독서행위에 비하여 비독서행위가 약 2배로 많고 평균체재시간비에서도 〈인접형〉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나 가족이용자에게 있어서 순수한 독서형태의 이용만을 고려한다면 〈인접형〉의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는 비독서행위가 주로 어떠한 장소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분리형〉에서는 어린이자료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다음으로 성인자료실 및 신문·잡지자료실, 기타 공간¹⁸⁾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접형〉에서는 어린이자료실과 기타공간을 중심으로 비독서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분리형〉의 성인자료실과 신문·잡지자료실에서의 비독서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리형〉의 구성이 층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 어린이가 독서행위를 하다가 동반한 부모를 찾아 1층으로 내려와 동반부모에게 대화 및 조르기 등의 행위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림 9〉 이용유형별 비독서행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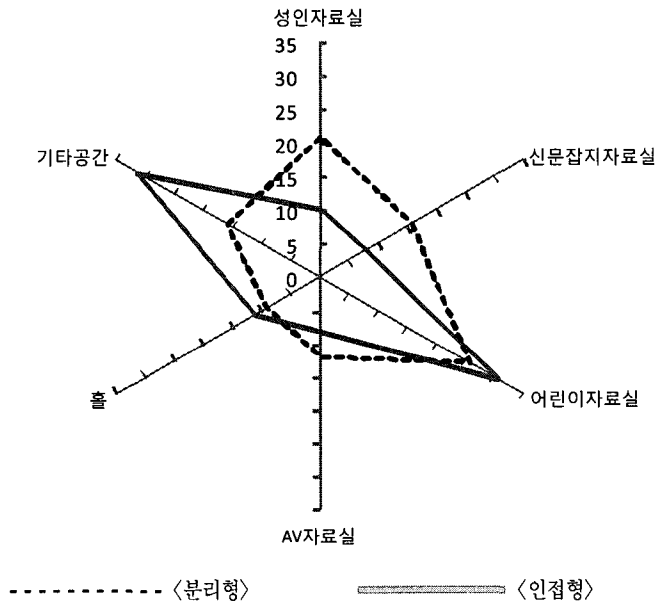
반면에 〈인접형〉의 성인자료실과 신문·잡지자료실에서의 비독서행위가 작게 나타난 것은 신문·잡지자료실이 알코브형식으로 되어 있어 대화, 놀이 등의 비독서행위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기 쉬워서 해당행위의 발생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접

18) 옥외공간 및 식당, 휴게실.

형)에서는 별도의 옥외공간이나 식당 등이 신문·잡지자료실 옆에 위치해 있어 대화가 필요한 가족의 경우 옥외로 나가거나 식당공간에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어린이자료실에 있어서 놀이 등의 비독서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카펫이 깔려 있어 어린이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공간이나 어린이의 키 높이에 맞는 알코브형식의 도서로 에워싼 공간 등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보이지 않고 도서를 여기저기 벌려놓는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독서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림 10〉의 가족이용자의 이용유형별 비독서행위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모두 기타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화 행위 그리고 놀이의 순이다.



〈그림 10〉 비독서행위가 발생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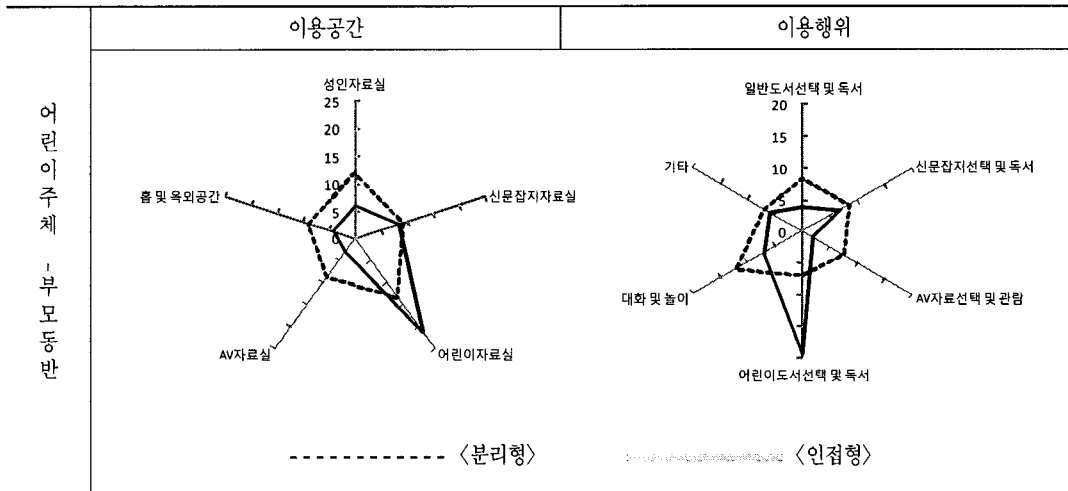
가족이용유형별로 보면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에서는 동반한 부모가 자녀에게 책이나 그림 책을 읽어 주는 것과 서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부모주체-어린이동반〉이용에서는 부모의 주목적이용으로 인해 동반한 어린이는 개별적인 놀이행위를 하거나 부모와 붙어 다니며 때를 쓰는 모습도 보였고 도서 대출이나 등록 등의 기타 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동반〉이용에서 대화가 가장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반한 부모가 자녀의 도서선택을 돕는 과정에서 주로 많이 나타난 결과이다. 〈상호독립〉이용에서 놀이가 많이 나타난 것은 어린이의 독립활동으로 인한 결과이고 기타행위는 주로 산책을 하거나 전시물의 관람 등 주로 개별적인 행동의 결과가 표출된 예라 하겠다.

Ⅲ.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별 이용행태 분석

지금까지 가족이용자의 이용유형의 특징과 비독서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공간구성별로 이용유형간의 이용공간 및 도서관내에서의 가족이용자의 전체적인 행위내용을 비교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에 있어서는 어린이와 부모 모두가 체재시간의 대부분을 어린이자료실에서 보내고 있었다. 주요 행위로는 공간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분리형〉에서는 대화 및 놀이행위가, 〈인접형〉에서는 어린이도서의 선택·독서행위가 많이 나타났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공간구성별 이용내용1

또한 〈분리형〉에서는 어린이가 이용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자료실에서의 이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층으로 분리된 공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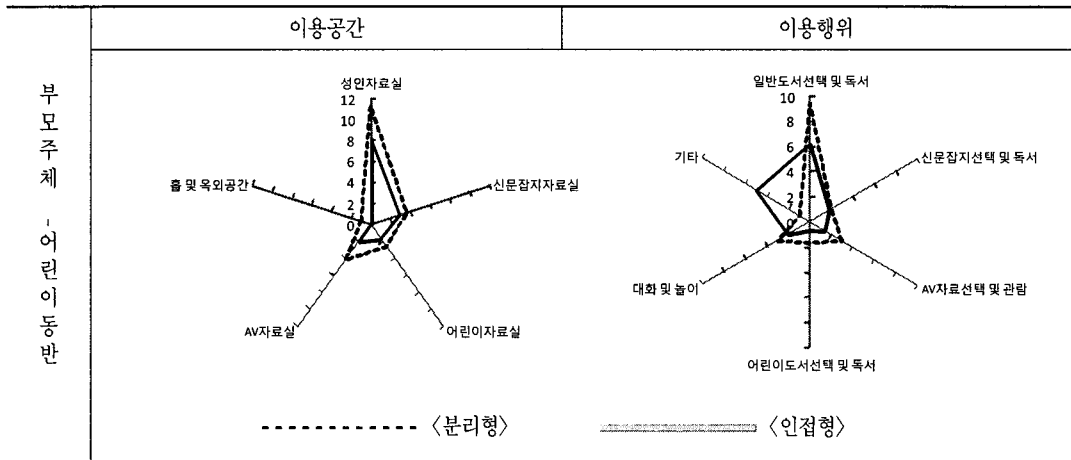
공간구성별로 보면 〈인접형〉의 경우가 〈분리형〉에 비해 비교적 충실히 어린이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부모는 단순히 어린이를 따라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린이도서의 선택을 도와주거나 책을 읽어주고 있는 장면이 많이 목격되어 어린이주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접형〉의 공간구성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부모주체-어린이동반〉이용은 부모가 성인자료실을 중심으로 신문·잡지자료실을 이용하며 동반한 자녀를 위해 AV자료실에서도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용시간이 짧은 것은 도서관내의 체재행위보다는 대출행위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그림 12 참조).

공간구성별 이용행위를 보면 〈분리형〉에서는 주목적인 성인자료의 선택 및 독서에 많은 시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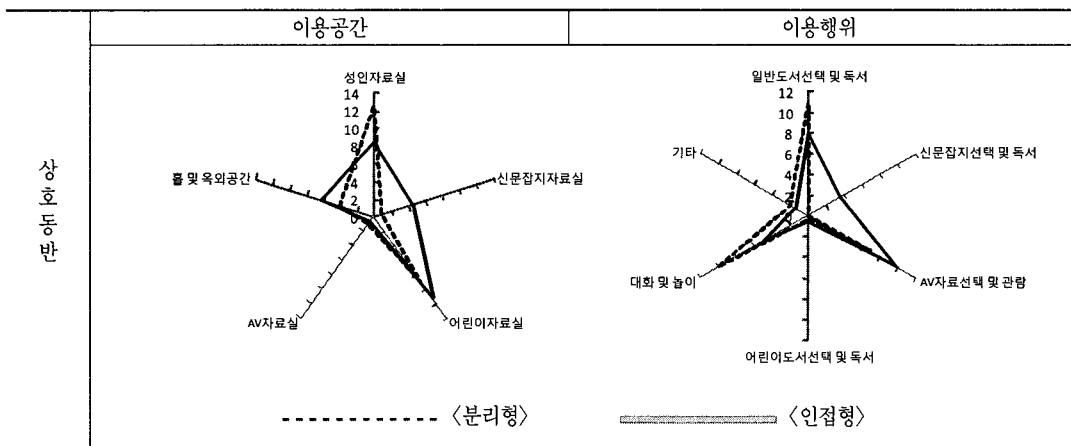
할애하는 동안 어린이는 부모에 붙어 다니며 대화 및 놀이 행위를 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성인자료의 선택·독서와 기타행위가 많았는데 기타행위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에 대한 동반성인부모의 감시행위와 음식을 먹는 행위가 많이 보였다.



〈그림 12〉 공간구성별 이용내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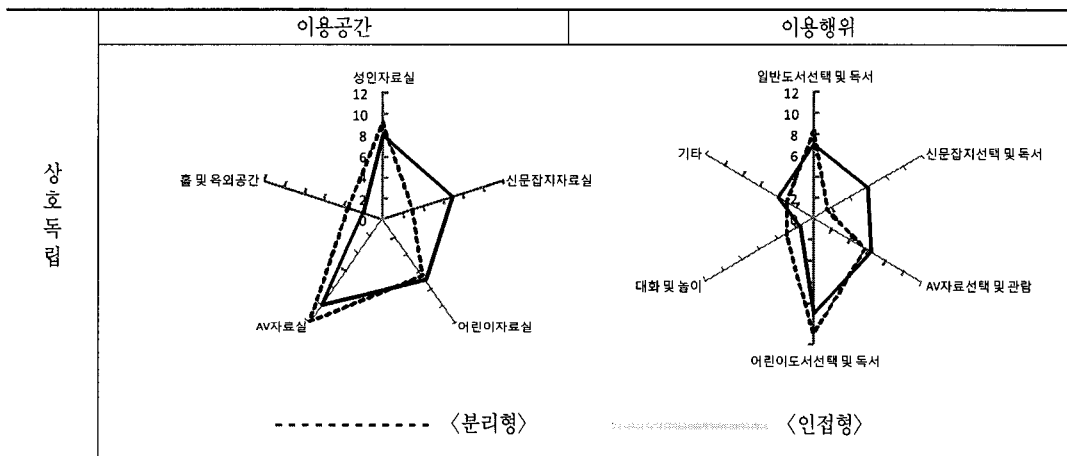
〈상호동반〉이용은 이용자 양쪽에 목적이 있는 관계로 성인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이 많은 시간 할애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 참조). 다음으로 휴 및 옥외공간의 이용시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대출수속 및 신간 간행물의 선택, 등록수속과 검색 등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13〉 공간구성별 이용내용3

어느 공간구성이든 이러한 이용에서는 어린이가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큰소리로 부모에게 말을 건네거나 그 장소에 앉아서 노는 어린이도 있어 특히 성인자료실에서는 다른 성인이용자에게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간구성별로 보면 시간적 차이는 보이지만 이용공간 및 이용행위에 있어서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고 이용행위에 있어서 대화 및 놀이행위가 많은 것은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형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하겠다.



<그림 14> 공간구성별 이용내용4

<상호독립>이용에 있어서는 성인자료실과 AV자료실 및 어린이자료실에서의 이용이 많고 이용행위 또한 이용공간과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어 다른 가족이용유형과는 다르게 대화 및 놀이 등의 비독서행위는 별로 보이지 않아 도서관에서의 순수한 독서행위만을 고려할 때에는 <상호독립>이용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공간구성별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이용공간의 구성에 맞게 충실한 이용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일본 도심 공공도서관의 가족이용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와 부모의 이용목적과 상호관계로부터 이용유형을 설정하고 가족이용자의 이용유형의 특징을 공간구성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이용자의 인원구성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모친과 유아의 2인 구성이 주된 이용주체라고 할 수 있다. 내관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용목적과 가족간의 상관관계의 의해 4가지 가족유형으로 분류하여 본 결과 전체적인 이용상의 다양성은 보이나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이 약 5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가족이용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어린이가 주체적이용을 하며 부모는 자녀들의 보호차원 및 독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반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도 약30%가 <상호동반> 및 <상호독립>이용을 하고 있어 그 만큼 이용목적을 가지고 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학교공부를 배우는 연령단계에 있는 어린이는 비교적 자립적인 독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도서관내에서의 독서행동에 관한 조사로 독서시간을 조사하여 체재시간과 독서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은 도서관내에서의 체재시간이 가장 길으나 이에 반해 독서활동에 쓰인 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상호독립>이용은 도서관내 체재시간은 적으나 독서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모주체-어린이동반>이용은 체재시간 및 독서시간이 모두 짧아 주로 도서의 관외대출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시간 도서관에 지내는 이용자의 대부분에서 비독서행위가 많이 발생하지만 짧은 시간의 이용자는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분리형>에서는 독서행위보다 비독서행위가 약 2배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과 부모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 층으로 분리된 공간구성이어서 어린이가 독서행위를 하다가 동반한 부모를 찾아 1층으로 내려와 동반부모에게 대화 및 조르기, 책 읽어주기 등의 행위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리형>의 공간구성의 경우 성인자료실이나 어린이자료실의 일부에 어린이공간 및 성인공간을 알코브형식으로 삽입하여 가족이용자간의 대화 및 책읽어주는 행위 등이 보장될 수 있게 계획이 된다면 독서행위가 행해지는 장소와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부모의 의식 가운데 이용제한¹⁹⁾을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인접형>의 성인자료실과 신문·잡지자료실에서의 비독서행위가 작게 나타난 것은 신문·잡지자료실이 알코브형식으로 되어 있어 대화, 놀이 등의 비독서행위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기 쉬워서 해당행위의 발생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접형>에서는 별도의 옥외공간이나 식당 등이 신문·잡지자료실 옆에 위치해 있어 대화가 필요한 가족의 경우 옥외로 나가거나 식당공간에서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족이용자의 이용유형별로는 이용유형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

19) 어린이가 떠들거나 뛰어다니는 행위를 할 때 주변이용자의 이용을 고려해 어린이에게 주의를 주어 결국 부모에게도 행동의 제약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에서는 책읽어주기 행위가 <부모주체-어린이동반>이용에서는 도서 대출이나 등록 등의 기타행위, 그리고 <상호동반>이용은 동반한 자녀의 도서선택을 도와주며 가족이용자간의 대화 행위가 많이 나타났고 <상호독립>이용은 어린이의 개별 활동이 보장되어 놀이 및 기타행위가 많이 나타났다

비독서행위는 체재형도서관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서관이 단순히 도서를 빌리기 위한 장소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 도서관에 체재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경향에 있다고 하는 것과 도서관내에서의 공간이용을 보더라도 도서의 탐색 및 독서라고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앉아서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거나 비디오와 CD를 감상하는가 하면 도시락을 싸와서 가족과 먹거나 도서관내의 커피숍을 이용하는 등 단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또는 약속의 장소로 도서관을 찾는 이용형태의 다양화가 나타났다.

넷째, 도서관의 공간구성별 이용분석의 결과로는 <어린이주체-부모동반>이용의 경우, <인접형>의 공간구성이 <분리형>보다 비교적 충실히 어린이주체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합한 공간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부모 양쪽의 이용목적을 충족시키는 이용유형은 <상호동반>과 <상호독립>이용으로 이들 이용유형의 행위내용 및 이용공간은 거의 같게 나타난다. 다만 <상호동반>이용은 부모의 일반서와 신문·잡지를 선택·독서하는 시간에 제약받기 쉽다는 점과 성인자료실에서는 어린이가 부모를 따라다님으로써 다른 성인이용자와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러나 <상호독립>이용에 있어서는 이용행위와 이용공간이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가족이용유형과는 다르게 대화 및 놀이 등의 비독서행위는 보이지 않아 도서관에서의 순수한 가족의 독서행위만을 고려할 때에는 <상호독립>이용을 염두에 두는 공간배치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